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6월 8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초등학생 하교길 교통안전지도 거의 전무”

초등학교 스쿨존안전지킴이 하교길 배치 등 대책 제기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정보건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6월1일 열린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등학생 하교길 교통안전지도가 거의 전무하니 구청 차원의 공공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구본승 구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12일 화계초등학교 등교시간대에 발생

한 교통사고 후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다. 사고 후 대처가 아닌 등 하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확인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화계초 하교시간의 정문 앞 사진과 2011년~2015년까지의 강북구청의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어르신 일자리사업) 배치 현황표를 설명하며 “학교보안관 1~2명만이 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어



구본승 의원

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2011, 2012년에는 하교길에 구청에서 파견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가 배치되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왜 배치가 안되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앞서 제가 제안한 초등학생 하교길 스쿨존 안전지킴이 배치를 포함하여 구청 차원의 관내 초등학생 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 답변바란다”고 발언하였다.

동북일보 4면

초등학교 스쿨존안전지킴이 하교길 배치 요구

구 본 승 의원
(미아, 송중, 번3동)

구본승 행정정보건위원장은 지난 6월 1일에 개최된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등학생 하교길 교통안전지도가 거의 전무하니 구청 차원의 공공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하교길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구본승 구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12일 화계초등학교 등교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 후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다. 사고 후 대처가 아닌 등 하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화계초 하교시간의 정문 앞 사진과 2011년~2015년까지의 강북구청의 스쿨

존 교통안전지킴이(어르신 일자리사업) 배치 현황표를 설명하며 “학교보안관 1~2명만이 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2011, 2012년에는 하교길에 구청에서 파견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가 배치되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왜 배치가 안되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앞서 제가 제안한 초등학생 하교길 스쿨존 안전지킴이 배치를 포함하여 구청 차원의 관내 초등학생 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 답변바란다”고 발언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1718@naver.com>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지킴이 하굣길엔 왜 없나?

구본승 의원, “초등생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거의 전무” 지적

강북구의회 구본승 행정정보건강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은 지난 1일 개최된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등학생 하굣길 교통안전지도가 거의 전무하니 구청 차원의 공공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하굣길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구본승 의원은 “지난 5월 12일 화계 초등학교 등교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 후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며 “사고 후 대처가 아닌 등하

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화계초 하교시간의 정문 앞(사진)을 보면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참조)

특히 구 의원이 제시한 2011~2015년의 강북구청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어르신 일자리사업) 배치 현황표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하굣길에는 교통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

구 의원은 “학교보안관 1~2명만이 하



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2011, 2012년 하굣길에는 구청에서 파견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가 배치되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왜 배치가 안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본승 의원은 “앞서 제안한 초등학생 하굣길 스쿨존 안전지킴이 배치를 포함해 구청 차원의 관내 초등학생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대책은 무엇이나”고 구청 측 답변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스쿨존안전지킴이 하굣길 배치 등 대책 제기!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정보건강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은 지난 6월1일에 개최된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초등학생 하굣길 교통안전지도가 거의 전

무하니 구청 차원의 공공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하굣길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12일 화계초등학교 등교시간대에 발생한 교통사고 후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고 후 대처가 아닌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노력이 매

우 절실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화계초 하교시간의 정문 앞 사진과 2011년~2015년까지의 강북구청의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어르신 일자리사업) 배치 현황표를 설명하며 “학교보안관 1~2명만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2011, 2012년에는 하굣길에 구청에서 파견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가 배치되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왜 배치가 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앞서 제안한 초등학생 하굣길 스쿨존 안전지킴이 배치를 포함하여 구청 차원의 관내 초등학생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 답변바란다.”고 했다.